

[순모임 교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 1:31)

하나님 기쁨의 시작은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입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성경은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화답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밤하늘을 비추는 별들, 가볍게 뿔을 스쳐가는 바람,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완벽한 찬양입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보입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역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1. 지난 6개월 동안 생명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그리고 앞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을 받았고 제각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감격이 있나요?
3. 이번 순모임을 마치면 여름에는 쉬를 가지고 가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순모임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제목과 앞으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름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온 가족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과 8월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에 금요비상기도회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로 하늘을 울리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모임들, 그리고 모든 순원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